

‘월드컵 신화’를 의료개혁의 타산지석으로



글 · 김광태 |
대한병원협회장

2002 한일 월드컵이 폐막된지 여러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4강 신화의 함성은 그대로 우리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듯 하다.

단군 개국 이래 우리민족을 이처럼 한덩어리로 뭉치게 한적이 있었 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엇그제의 감격은 조금씩 식어가겠지만 '4강진 출 확정' 은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의학 滿開속 병원은 위기국면

이땅에 현대의학이 도입된지 1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오늘날 같이 병원이 생존을 논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길지 않은 기간 만에 서양의학이 「대한민국」에서 꽃피워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의술로 발전된 것은 우리 의학도들의 끈임없는 정진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의료인은 '최선의 환자진료'가 지고지선의 소명일진데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면서 최선의 진료대신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한 규격진료, 방어진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통제 규제 중심 의료정책의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

특히 재작년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병원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수가체계에다 병원외래조제실 폐쇄로 외래환자가 급감하고 진료수익이 감소하여 지난해만도 연간 8.9%의 병원이 도산했으며, 현재도 상당수 병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병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있으나 그다지 실효성있는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이에 병원정책에도 히딩크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환경은 실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파탄상태에 까지 이르렀던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정부의 재정건전화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노령화사회 가속화 및 수진율증가, 낮은 보험료율, 보건의료예산 부족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정부, 국민, 시민단체, 보험자등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부담을 고려한 나머지 의료보험 도입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보험료율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재정부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 등의 경우처럼 병원에 대한 사회 각계의 기부(기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병원 활성화는 의료정책의 근간이며, 선진의료복지의 지표

경영위기극복은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히딩크 리더십을 의료정책수립에도 접목시켜 먼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강화), 경쟁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켜(건강보험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며 확대해나감), 꿈의 신화를 이룩(병원의 경쟁력을 복돋워 선진의료보장을 구현함)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2

히딩크 리더십을 의료정책수립에도 접목시켜 먼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강화), 경쟁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켜(건강보험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며 확대해나감), 꿈의 신화를 이룩(병원의 경쟁력을 복돋워 선진의료보장을 구현함)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